

“너무 놀라지마라”

제27회

# 부산연극제

## THE 27TH BUSAN THEATER FESTIVAL

2009. 3. 26(목) - 4. 15(수)

부산문화회관 중극장 / 부산시민회관 소극장



- | 주최 | 부산광역시 | 주관 | (사)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
- | 후원 | 한국문화예술위원회 (사)한국연극협회 한국예총부산광역시연합회 부산일보 국제신문  
 KBS 부산방송총국 MBC 부산문화방송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부산CBS BBS 부산불교방송
- | 협찬 | KYOBO 교보생명 BS 부산은행 MEGA MART 아람햇살 ORS (주)옵스



THE 27TH  
BUSAN THEATER  
FESTIVAL



경연작 7

극연구집단 시나위

# 대숲에는 말(言)이 산다

(작 : 김문홍 / 연출 : 오정국)

4. 9(목) ~ 10(금)

부산문화회관 중극장

목/19:30 금/16:30, 19:30



연출 | 오정국

## | 연출의도 |

우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볼 때 임금은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낀다.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 연극의 특성을 살려 해학적으로 풀어내고자 한다.

## | 줄거리 |

어느 날 복두장이는 꿈속에서 경문왕을 만난다.

꿈속에 나타난 경문왕은 당나귀처럼 큰 귀가 부끄러워 복두로 그 귀를 감추고 싶다고 한다.

잠에서 깨어난 복두장이에게 금군수장이 부하를 거느리고 나타나고, 복두장이를 궁으로 데려간다.

그렇게 경문왕을 만나게 된 복두장이.

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가 아니라 일반사람의 귀처럼 크지도 작지도 않은 보기 좋은 만큼

알맞은 크기의 귀라는 걸 알게 된다.

이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범교사와 금군대장은 음모를 꾸미게 되고, 복두장이의 아들을 불모로 내세워 거짓으로

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소문을 내게 만든다.

그러던 중 경문왕이 죽고 반란군에 의해 복두장이마저 목숨을 잃게 되는데...

CAST | 나오는 사람



복두장이 | 박상규



석여령 | 김혜정



금군, 대숲, 마을사람  
박재환



금군대장 | 강태욱



대숲, 마을사람  
김학준



법교사 | 서성원



금군, 대숲, 마을사람  
신원준



박상화 | 박근태



응렴 | 엄준필



위홍 | 오영섭



숙영왕후 | 김현진



김미원 | 한은영



대숲, 마을사람  
서정민



대숲, 마을사람  
장민



대숲, 마을사람  
조재호



대숲, 마을사람  
박교원

STAFF | 만드는 사람



작가 | 김문홍



조연출 | 반필우



무대감독 | 백길성



조명감독 | 장영섭



음악감독 | 전현미



무대미술 | 황경호



의상 | 김윤정



의상 | 김도희



무대장치 | 손안모



소품 | 김동현



진행 | 백상희



진행 | 이재우



안무 | 김보영



분장 | 박은주